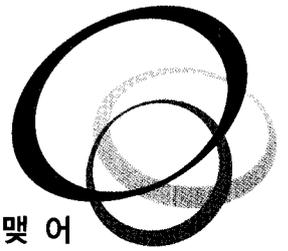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갖추자



한화그룹,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맺어

글로벌 기업은 모든 기업이 꿈꾸는 미래다. 그러나 넓은 세계에는 경쟁동종기업도 많아서 글로벌 기업 대열로 합류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발 벗고 지원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여기 실질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대기업이 있다. 바로 한화그룹이다.

정리_ 편집부 | 자료제공_ 한화그룹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지난 9월, 1천여 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및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 및 협력회사 국영지앤엠 최재원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그룹 창립 57주년을 앞두고 기업의 성장사를

돌아 보건대, 중소기업 여러분이 아마도 한화 발전에 묵묵히 조력해오신 숨은 공로자”라면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하나 하나가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9월에 열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앞서 지난해 8월에 김승연 회장의 주재 하에 그룹 내 화학사업부문 협력업체들과 ‘한화가족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실질적 상생협력 제시해

한화그룹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은 중소기업들의 지난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들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를 위해 세부 방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중요 현안인 결제대금 지급의 현금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결제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를 위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과 운용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성과 적정성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인력과 교육지원 외 원부자재 구매대행 서비스, 경영 닥터제 운영 및 법무상담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한화그룹은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